

월요논단



서 용 건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1960년대 이스라엘의 심리치료사였던 하임 기타르박사는 온갖 문제를 일으켜 소년원에 와있는 청소년들에게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주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는 소위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이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을 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감정을 보고 이를 수용하자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즉 감정과 행동을 구분한 것이다. 이것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성과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감정코칭 역사의 시작이다. 이

'감정'에 대한 공감

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상과 벌로 개인행동을 강화시키는 소위 행동주의의 한계를 넘는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었다. 지난 20년 사이 이미 90년간 영재를 연구한 유명한 티번 연구가 장기성공의 예측요인은 지능지수(IQ)가 아니라 정서지능(EQ)이라는 것을 밝혔고 많은 연구 결과 장기 성공의 예측요인은 학력이 아닌 인성과 사회성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지금은 상식이 된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일수록 사회성이 뛰어난 것이다. 인간관계학의 권위자 존 가트먼박사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다. 첫째는 서로 원수되는 대화이다. 이는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비웃어 상대방이 무시당한 기분, 슬픔, 분노를 느끼는 경우이다. 둘째는 멀어지는 대화로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거나 화제를 돌리는 경우이다. 이로써 상대방은 무시당한 기분, 소외감 등을 느끼게 된다. 셋째는 다가가는 대화다. 상대의 말걸기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다가가 두 사람 사이에 우호감이 증진되는 경우이다. 서로 마음을 여는 다가가는 대화는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서로 마음을 닫는 대화인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비난, 경멸, 자기방어, 상대에게 말을 안하는 담쌓기로 나타난다. 가트먼 박사는 특히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게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가가는 대화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경청이다. 경청은 귀를 열고 말을 알아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가슴에 새겨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 마주치기, 고개 끄떡이기,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표정과 태도 등의 추임새를 포함하며 말로도...이랬던 말이에요, ...구나, ...다는 거지요? 내가 잘 이해한 건가요? 등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며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요소인 공감은 동의나 찬성, 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혼자나 함께나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요소는 관심이다. 관심을 가질 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탐색하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다. 호기심은 무언가를 알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면 관심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사설

정기국회서 4·3특별법 처리 사활 걸어야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총선(4월)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가능한 빨리 법안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를 틀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는 제주4·3특별법입니다. 20대 정기국회 막판까지 왔지만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4·3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3특별법과 밀접한 '과거사법'이 얼마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 투입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한계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탐라문화광장이 완공 2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돼 2017년 완공했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를 중심으로 4만9000㎡ 면적에 사업비만 5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조성 당시부터 탐라문화광장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탐라문화' 광장을 내걸었음에도 정작 탐라문화와는 거리가 먼 국적불명의 광장 조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탐라문화광장은 산지천 서쪽변에 축조됐던 제주성 간성터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이곳에 있던 중인문은 1914년까지 존속했다가 일제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이러한 역사성을 회복하고 되살리는데서 활성화를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 연할 계획"이라고 첨언. 전선회기자

이름만 탐라문화광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도입 시결과 프로그램 역시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광객 유인을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연구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열렸지만 상권 활성화는 미흡한 데다, 광장 이미지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유산 활용과 친수공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광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탐라문화광장 담당부서가 제각각인 것도 조정이 필요함이라는 점에서 조성하는데만 급급한 행정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열린마당

행정업무 덜어내고, 바로 서는 교육으로



장 영 하

제주시 구좌중앙초등학교 교감

"교사가 되면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았는데... 교사를 꿈꿀 때의 생각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회의감마저 들어요." 작년 이맘때 경력 3년차 교사의 하소연을 들었다. 교사 본연의 수업보다 각종 공문을 처리하느라 보면 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학교에서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관행적인 행사 금지, 공문량 줄이기, 전결 규정 재검토 등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늘 안고 있는 숙제였다. 이에 더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까지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업무도 만만치 않아 업무 기피현상마저 나타났다.

그러던 올해 3월, 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교행정 실무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행정업무 부담이 더 많아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센터의 지원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수학여행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업무지원은 두드러졌다. 학교에서 보낸 수학여행계획서를 토대로 계획서 컨설팅, 장소 섭외 및 위생점검, 야간 안전요원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주었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강사 선정 및 돌봄 간담회 등 기존에 교사들이 했던 행정업무를 하나씩 덜어주면서 점차 학교와 센터간의 협력과 지원체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느끼게 됐다.

앞으로도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더 많이 덜어내 주교, 교사들은 질 높은 수업과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2공항 도민공론화 이번주 향방 관심

부결시 직권상정 가능성도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향방에 이목 집중.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2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

한편 해당 결의안 부결시 발의자인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종 처리 결과에 촉각. 오은지기자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모색

○...서귀포시가 지난 24일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 두번째 회의를 열고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 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

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선 서귀포항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 2020 여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의견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방안을 자문.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해운·항만 물류분야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서귀포항의 물류 발전 가능성 타진 등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첫 예술단 합동 공연 의미'

○...제주도가 12월 7일 개최하는 5개 제주도립예술단 합동 공연 프로그램을 알리면서 "단일 협공 공연을 선보이지 못해 아쉽지만 예술단 설립 이래 첫 합동공연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 이번 공연에서는 짧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예술단별 기존 창작 작품과 '카르미나 부라나' 등 익숙한 명곡을 선곡.

제주도는 "앞으로 합동공연을 정례화해 내년부턴 5개 예술단 전체가 연초부터 준비해 1개 작품을 공연할 계획"이라고 첨언. 전선회기자

부 고

강동휘(동일추레라) 아버지 진주 강공 성업(제주시 공영버스·향년 62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6일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8일(월)
▶발인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오 세 자
아 들 강 동 휘
딸 강 지 희
사 위 최 석 윤

※ 연락처 : 오세자 010-9487-9663
강동휘 010-6222-0219
강지희 010-3639-8889
부민장례식장 742-5000

부 고

박정혁(범무법인 중흥 변호사) · 정우(LG화학 차장) 아버지 밀양 박공 시업(前 애월읍장·향년 69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7일 02시 07분경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8일(월)
▶발인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천왕사 연화원

부 인 최 순 희
아 들 박 정 혁 며느리 강 수 진
정 우 문 은 주
딸 박 은 덕 사 위 정 연 중
손 자 박 지 흥 손 녀 박 시 현
외손자 정 세 훈 서 현
유 훈 아 현

※ 연락처 : 최순희 010-9656-5652
박정혁 010-3498-6770
박정우 010-2696-6770
박은덕 010-3697-6770
정연중 010-9758-6770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064)717-2900

부 고

(故) 김우철 어머니 제주부씨 대옥(향년 103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6일 16시 40분경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29일(화)
▶발인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며) 김 우 철 며느리 김 정 희
우 찬 부 향 순
우 현 문 영 순
우 근 강 금 선
딸 김 명 진 사 위 조 문 석
명 순 백 의 통
명 수 고 경 수
명 숙 부 영 석

※ 연락처 : 김우현 010-3693-0333
김우근 010-6635-87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광호(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28일

아 들 김 대 홀 며느리 이 인 정
대 석
딸 김 정 임 사 위 지 봉 수
정 인 한 승 관
정 원
정 효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동철(향년 6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28일

부 인 정 속 열
아 들 김 기 범
딸 김 수 희
사 위 박 현 중

제주도 토지 매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평화로변

·생산관리지역 목장용지
·494,244㎡(분할매매 가능)
·2차선 도로점 시멘트 도로점

기타문의 전화요망

☎ 010-5110-566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자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